

금호타이어 노조 당분간 파업 유보

18일 이후 파업계획 다시 논의 ... 새 협상안으로 막판 타결 가능성도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이 최종 실패로 마무리됨에 따라 당장 파업을 벌일 수 있게 됐지만 당분간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3월16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여부에 대해 논의를 벌였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노조는 18일 이후에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와 시기, 규모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집중 교섭을 벌이되 정해진 기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때 가서 파업 여부를 논의하자”는 내용을 두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섭위원을 중심으로 새로운 협상안을 만들어 사측과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도 3월15일 전라남도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회의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노조 측이 새로운 협상안을 마련하면 막판 타결 가능성도 기대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18일 광주지법에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노조의 견해를 밝힌 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앞으로의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교섭위원이 협상안을 마련하면 회사 측과 다시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3/16>